

‘브랜드 K’와 한국의 언론중재제도

박치형 전 EBS 부사장, 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최근 공개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케이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판타지적 세계관과 결합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작품은 음악에서 출발한 K-컬처가 드라마, 영화, 게임, 패션, 음식,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로까지 확산하며 ‘브랜드 K’라는 거대한 문화적 흐름으로 성장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제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세계가 함께 즐기고 공감하는 글로벌 문화의 언어가 되었다.

문화적 성취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를 떠받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아무리 눈부신 성취라 해도 왜곡된 정보와 허위 보도로 인해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팝을 둘러싼 루머와 가짜 뉴스가 아티스트와 그의 팬덤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화가 공감을 열어주었다면, 제도는 신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적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중재제도라 할 수 있다.

나는 2020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서울 제6중재부 중재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직접 다뤘다. 피해자가 “사실 확인 없는 기사 한 줄로 삶이 무너졌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취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항변하는 순간도 있었다.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절실함이었다. 때로는 법조문보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는 짧은 사과 한마디가 분쟁을 풀어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언론중재의 본질이 법과 사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몇 가지 뚜렷한 강점을 지닌다. 첫째, 신속성이다. 장기간 소송 대신 짧은 절차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실효성이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 삭제, 손해배상 등 다양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 셋째, 법적 구속력이다. 합의가 성립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해 피해자 보호와 언론 자유라는 두 가치를 현실적으로 조율한다.

세계 각국의 제도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제도의 독창성은 분명하다. 영국과 독일은 언론인 협회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지만 강제력이 약하다. 미국은 언론 자유의 폭이 넓지만 피해자는 장기간의 고비용 소송을 감내해야 한다. 일본은 신문협회나 방송사 내부 절차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법률에 근거한 준사법적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이는 효율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제도로서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모델이다.

물론 완벽한 제도란 없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제도는 끊임없이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최근 논의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장치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언론의 위축과 자기검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허위와 악의적 보도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되, 공익적 보도는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더불어 언론사가 기사 오류를 스스로 확인하고 정정하려 할 때에는 과도한 제재 없이 신속하게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야 언론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한층 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케이팝의 성공이 창작의 자유와 자발적 참여에서 비롯되었듯, 언론 역시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누군가의 삶을 무너뜨릴 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국의 언론중재제도는 바로 이 균형을 제도화한 살아 있는 모델이다.

대한민국은 오랜 기간 선진국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며 발전해 왔다. 경제 개발 과정에서는 산업화와 법 제도를, 민주화 과정에서는 언론 자유와 법치의 원칙을 배우며 사회의 체질을 강화했다. 그 토대 위에서 이제는 케이팝,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열고 있다. 방송·교육 분야에서 EBS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제도권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을 확장하는 모델이 된 것처럼,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한국 사회가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성공적 제도다. 신속성과 실효성, 법적 신뢰성을 두루 갖춘 언론중재제도야말로 한국 사회가 축적한 경험과 지혜의 집약체이자, 세계가 주목해야 할 한국형 모델이다.

앞으로 이러한 성과는 더욱 내실화되고 체계화되어야 한다. 이제는 선진국의 제도를 배우며 성장해 온 한국이 그 경험을 세계와 나눌 차례다. 언론중재제도의 성과와 사례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각국이 피해자 보호와 언론 자유의 균형을 이루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교류와 협력을 넓혀야 한다.

K-컬처가 세계인의 감성을 열었다면, 한국의 성공한 제도는 세계의 신뢰를 붙들 것이다. 나아가 문화적 성취와 제도적 성과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브랜드 K’는 완성된다. 브랜드 K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축적해 온 가치와 지혜, 그리고 제도의 성취까지 포괄하는 국가적 자산이다. 지금이야말로 K-컬처와 더불어 브랜드 K를 강화하고, 한국 언론중재제도를 비롯한 한국형 모델을 세계에 확산시킬 절호의 기회다. 🇰🇷